

기술을 넘어 시민 체감형 모빌리티로: EU, "Living Lab 및 SRL 지표* 도입"을 통한 자율주행 실용화 가속

* 사회적 준비도(SRL) 지표

해당국가	EU	기관(기업)	유럽 집행위원회(EC)	동향분야	정책	국토교통 기술분류	도로교통
------	----	--------	--------------	------	----	--------------	------

□ 유럽연합(EU)은 '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5~2027'을 통해 협력형·커넥티드·자율주행 모빌리티(CCAM)의 사회적 수용성과 데이터 신뢰성을 강화하는 R&D 로드맵을 발표

○ 데이터 공유와 표준화 기반의 '안전성 검증' 위에 시민 참여형 실증을 결합하여, 자율주행 기술의 실질적 도로 적용과 신뢰도 확보 흐름을 가속하는데 초점

- 시민 참여형 실증의 핵심추진전략은 사회적 수용성 강화를 실현하고 이를 통해 사회적 준비도(SRL*) 측정, 심리적 안정 장치인 투명한 소통 체계를 구축

* 'Social Readiness Level', 특정 기술이나 혁신적 솔루션이 사회 전반에 통합되고 대중에게 수용될 준비가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지표

- 또한, 다양한 계층(노인·장애인 등)의 피드백을 R&D 초기 단계부터 반영하는 'Living Lab' 중심의 접근법을 강조

○ 데이터 민주화 기반 '안전성 검증' 및 표준화 체계 강화

- 자율주행 중 발생하는 희귀 사고 사례 데이터를 공공 플랫폼에서 공유하여 알고리즘의 안전성을 공동 검증하는 표준 연구 지원

- 개별 제조사 중심의 폐쇄적 데이터를 넘어 초국가적 데이터 공유를 통해 자율주행 판단 결과의 '설명가능성'과 '신뢰성'을 확보하는 기능 포함

- 도로 인프라와 차량 간 실시간 통신(V2I) 환경에서 데이터 보안과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한 차세대 사이버 보안 기술 내장 지원

○ 운영 실효성을 위한 '시민 참여형 실증-윤리 가이드-교통 약자 포용' 체계 내장

- 유럽 주요 도시의 실제 도로를 활용해 시민이 직접 자율주행 서비스를 경험하고 피드백을 제공하는 '수용성 기반 워크플로' 지원

- AI가 사고 위험시 내리는 판단에 대한 윤리적 가이드라인을 수립하고, 이를 차량 제어 시스템에 기술적으로 반영하는 R&D 강화

-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5~2027의 CCAM 전략은 EU의 'Zero Fatalities 2050' 목표 달성을 위한 핵심 솔루션이며, 차세대 철도 통신 및 친환경 물류 인프라 통합 기술 포함 명시

※ 출처 : Horizon Europe(2025.04), Horizon Europe Work Programme 2025~2027: 8. Climate, Energy and Mobility